

#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생육현황 및 보존관리 방안<sup>1)</sup>

조 규 태<sup>2)</sup>

에코숲생태연구소/서원대학교

## I. 서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명승과 함께 기념물에 속하는 것으로,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으로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문화활동이 얹혀져 있는 인류 문화생활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물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인간과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관리된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기념적 가치, 원생적 가치, 향토적 가치,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을 가지게 된다. 기념적 가치와 원생적 가치는 자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배어 있음을 내포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 및 문화재적 가치 속에서 인류와 생활 속에 공유되는 부분이 기념적 가치, 그리고 민족의 정신문화와 같은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원생적 가치로 나타난다.

본 원고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 중에서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생육현황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Natural Monument No. 159 Jeju Bonggae-dong *Prunus yedoensis* Matsum Growth Status and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2) CHO, Kyu-Tae, Seowon University, E-mail : ktcho@seo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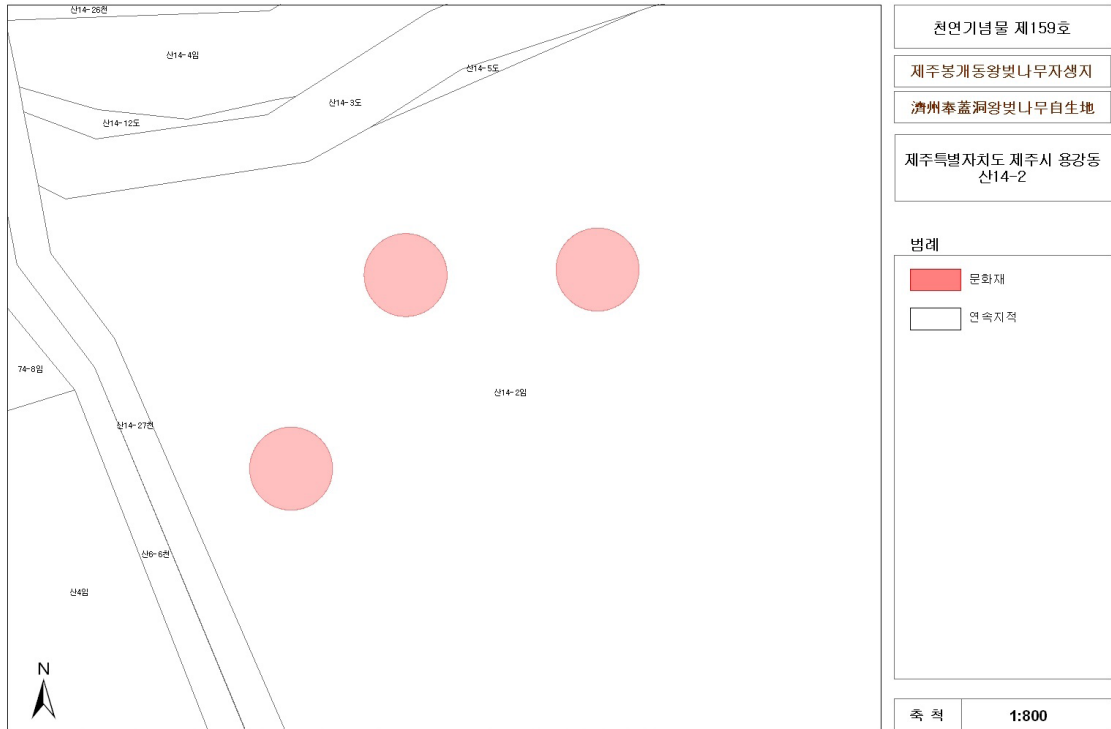
## II. 일반 현황

### 1.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 소재지: 제주 제주시 명림로 584 (봉개동)
- 지정일: 1964년 01월 31일
- 문화재지정면적: 1,357m<sup>2</sup> (문화재청 고시 제2008-158호)
- 지정사유: 우리나라가 원산지로서 그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므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식물 지리학적 연구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2. 문화재 역사 및 유래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다. 봉개동은 광무 8



〈그림 1〉 천연기념물 지정 고시도면(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년(1904)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서 봉개라 하여 연가(燃家) 230호, 인구는 61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개악리 또는 상봉개악리와 하봉개악리로 불리어오다가 1709년 봉개악리 또는 봉개리로 표기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봉개리라 칭하고, 1931년에는 제주읍에 속했으며, 1955년 9월 제주읍의 제주시 승격에 따라 봉개동에 편입되었다. 1962년 1월 1일 말단 행정구역의 정비강화에 따른 임시조치로 봉개동이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수종의 벃나무류가 자생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구별 없이 "사오기" 또는 "사옥"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생지에서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에 자라며, 3그루가 지정되었으며, 주위에는 짙레나무, 산초나무, 청미래덩굴, 구지뽕나무, 보리수나무가 자라고 있다.

### 3. 자연 현황

#### 1) 지형 및 지질

제주 봉개동 왕벃나무 자생지가 위치한 지역 일대의 표고는 575~610m, 경사는 0~25°로 한라산 주변의 분지 지형이다. 이 중 문화재 구역의 표고는 580~595m에 분포해 있으며, 경사는 5~10°가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측의 한라산 방향으로 점점 경사가 높아진다.

#### 2) 기후환경

2015년 기후는 평균기온이 16.7℃, 평균최고기온이 19.8℃, 평균최저기온이 14.1℃였으며, 평년값보다 평균기온이 0.9℃, 평균최고기온이 0.9℃, 평균최저기온이 1.2℃ 높았다. 2015년 평균강수량은 1,728.3mm로 평년값보다 230.7mm 많았다.

### 4. 식생 및 도로 현황

#### 1) 식생 현황

제주 봉개동 왕벃나무 자생지의 주변의 식생유형은 산림(팽나무-졸참나무군락), 관목림, 초지, 시가지 및 나지 등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팽나무-졸참나무군락(22,689㎡, 72.3%)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그 외 초지(5,022㎡, 16.0%), 시가지 및 나지(1,210㎡, 3.9%) 등으로 구분되었고, 문화재구역은 팽나무-졸참나무군락(1,120㎡, 78.2%)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 2) 접근로 및 도로 현황

### ① 첨단과학기술단지 입구 교차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와 성판악, 제주도 동부 지역을 가기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에 제주 국제대학교, 제주 경찰학교 등 기관시설이 많고, 이 도로를 통해서만 왕벚나무 자생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생지에 대한 안내나 표시가 필요한 곳이다.

### ② 5·16 도로 교차로

대상지의 동측에 위치한 516교차로는 1112도로와 1131도로의 합류지점으로, 성판악이나 서귀포시 또는 동부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이동한다. 서귀포시에서 대상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안내가 필요하다.

## 3) 문화재 주변 문화·자연유산 현황

대상지역 인근의 문화, 관광 축제는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 제주 왕벚꽃 축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성산 일출제 등이 개최되고 있어, 인근의 문화, 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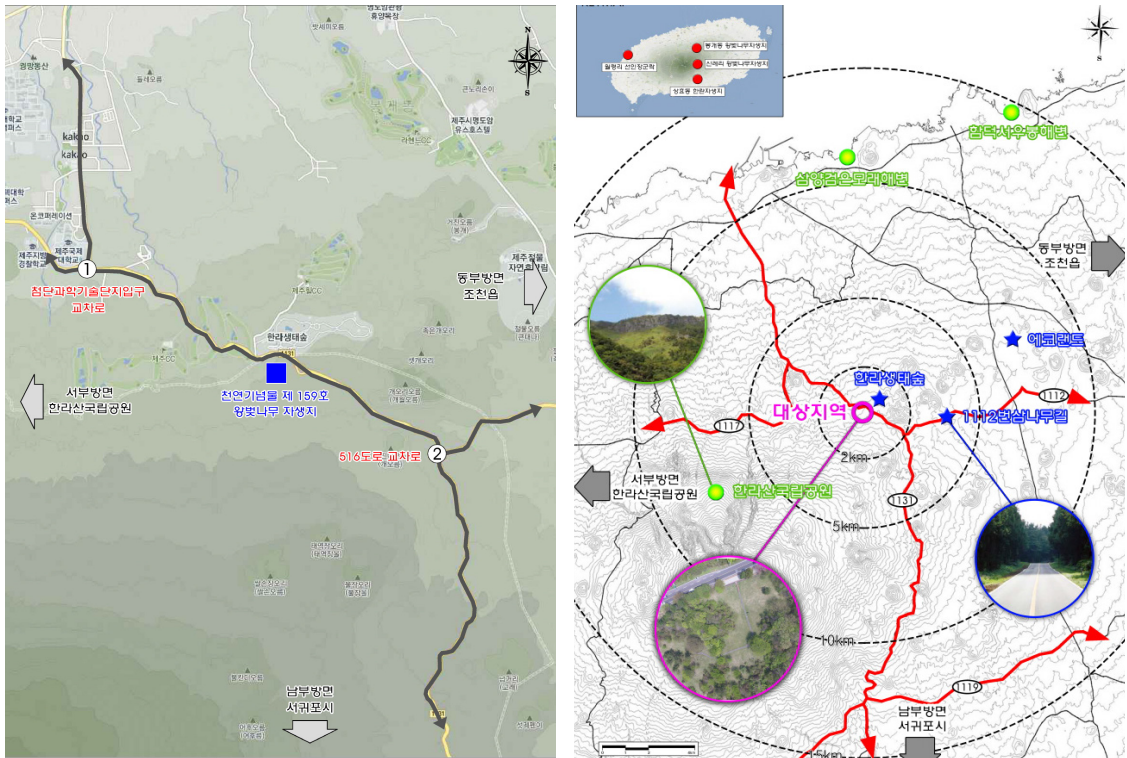


① 첨단과학기술단지 입구 교차로



② 5·16 도로 교차로

〈그림 2〉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도로상황



〈그림 3〉 제주 봉개동 왕빛나무 자생지 주요 접근로(좌) 및 문화·자연유산 현황도(우)

야 할 것이다. 주변 문화재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600~1,300m 이상의 지역과 일부 계곡 및 특수한 식물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지형과 지질 및 식물·동물이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라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5. 경관 현황

제주 봉개동 왕빛나무 자생지의 남서측으로 천혜자원인 한라산이 위치해 있고, 주변지역에는 자연휴양림 등 산지경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상지에는 안내판과 표지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고, 대상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 설치, 산책로에 자갈 포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경관 현황

### Ⅲ. 생육현황 조사 및 분석

#### 1. 토양환경 현황

토양의 산도는 pH 6.4로 산성을 띄고 있으며, 토양 수분함량은 32%이었다. T-N과 T-C는 각각 0.91%, 10.43%였으며, 토양의  $\text{Ca}^{2+}$ ,  $\text{Mg}^{2+}$ ,  $\text{K}^{+}$ 함량은 각각 1.03Cmol/kg, 0.14Cmol/kg, 0.01Cmol/k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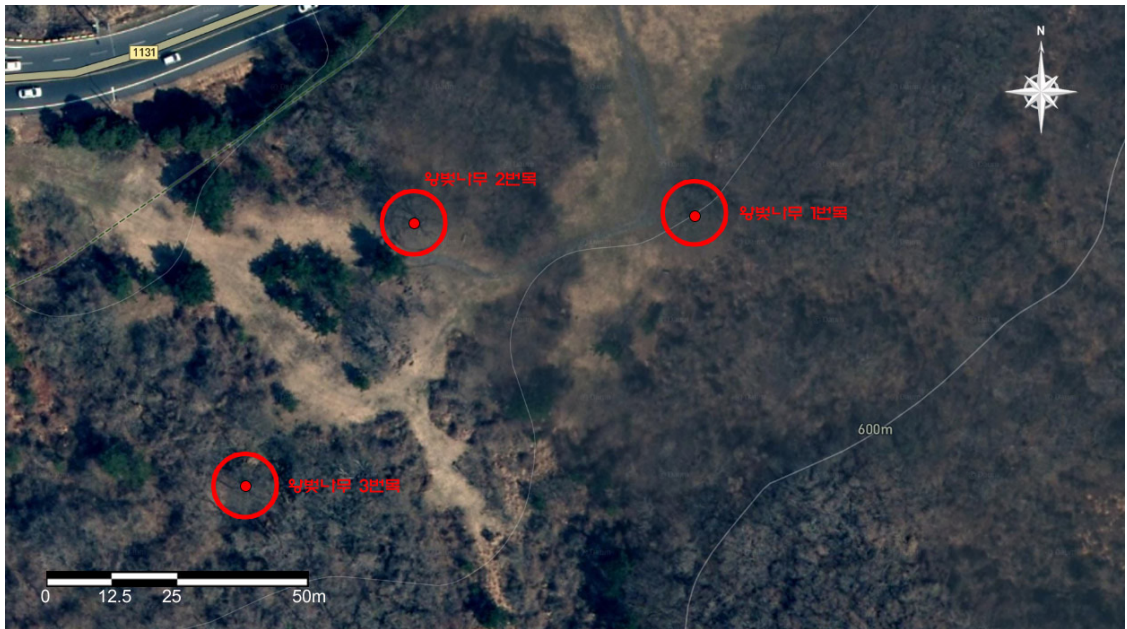
#### 2. 개체군 현황

##### 1) 대상식물 또는 개체군 분포 현황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는 제주시 명림로 584(봉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생지 내에는 왕벚나무가 3개체가 생육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제주시 516도로 변에 위치하며, 3그루 중에서 1번목은 도로에서 조망되고, 2번목과 3번목은 도로에서 조망되지 않는다. 왕벚나무는 나무 재질의 울타리와 돌로 조성된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다. 1번목과 3번목은 산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으나, 3번목은 산림의 끝자락으로 때죽나무 등과 함께 자라고 있다.

〈표 1〉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토양분석

구분	산도 (pH)	수분 (%)	T-N (%)	T-C (%)	C:N ratio	치환성 양이온(Cmol/kg)		
						Ca	Mg	K
측정값	6.4	32	0.91	10.43	11.51:1	1.03	0.14	0.01



〈그림 5〉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분포도

## 2) 개체군의 크기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내에 생육하는 왕벚나무는 총 3그루이며, 분포 형태는 3그루 모두 단생이다. 왕벚나무의 수고는 12~15m이고, 흉고직경은 50~73cm로 생육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수령이 많고 상처로 인한 구멍이 생기고, 줄기에 이끼 등으로 인해 고사의 가능성이 있다.

## 3) 대상 식물의 생육상태 평가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내 수목의 감시등급 질적 평가는 “주요 감시”로 판정하였고, 건강성등급 양적 평가는 23점으로 수관 활력도는 5등급 중 3등급인 “약간 쇠퇴”로 평가되었다. 대상지 내 왕벚나무는 3개체 모두 수관은 보통이나, 수피에 이끼가 많이 끼어있어 불량하였고, 수형은 고사에 의한

〈표 2〉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의 개체군 크기

번호	위치	국명	수고 (m)	흉고직경 (cm)	비고 (나무번호)
1	제주시 봉개동	왕벚나무	12	73, 50	1
2	제주시 봉개동	왕벚나무	13	64.6, 58.6	2
3	제주시 봉개동	왕벚나무	15	55.1	3

가지의 손상이 심각하여 불량한 상태이다. 또한, 주가지 치사율과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수관부분의 비율이 보통주 순이며, 그로 인해 잔가지와 잎의 변색 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의 활력도 평가결과표

감시등급 질적 평가						
수관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양호		수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양호
뿌리노출		<input type="checkbox"/> 심각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약		수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양호
지표면		<input type="checkbox"/> 인공 <input type="checkbox"/> 반자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		수분 · 영양분 공급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양호
훼손도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활력도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높음
판정		<input type="checkbox"/> 절대감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감시 <input type="checkbox"/> 일반감시				
건강성등급 양적 평가						
조사항목 조사항목		등급(점수)				
		I 등급(5점)	II등급(4점)	III등급(3점)	IV등급(2점)	V등급(1점)
지상부	수관 전체의 손상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가지의 손상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소지의 손상(생장불량)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잎의 손상(변색, 낙엽)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나무 정상부분 마름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수간부	수피의 손상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주간(물관부)의 부패	0-10%손상	11-20%손상	21-30%손상	31-40%손상	41% 이상 손상
합계 점수		23				
수관 활력도 평가						
구분	1등급(30점 이상)	2등급(25~29점)	3등급(20~24점)	4등급(15~19점)	5등급(14점 이하)	
평가결과			○			



〈그림 6〉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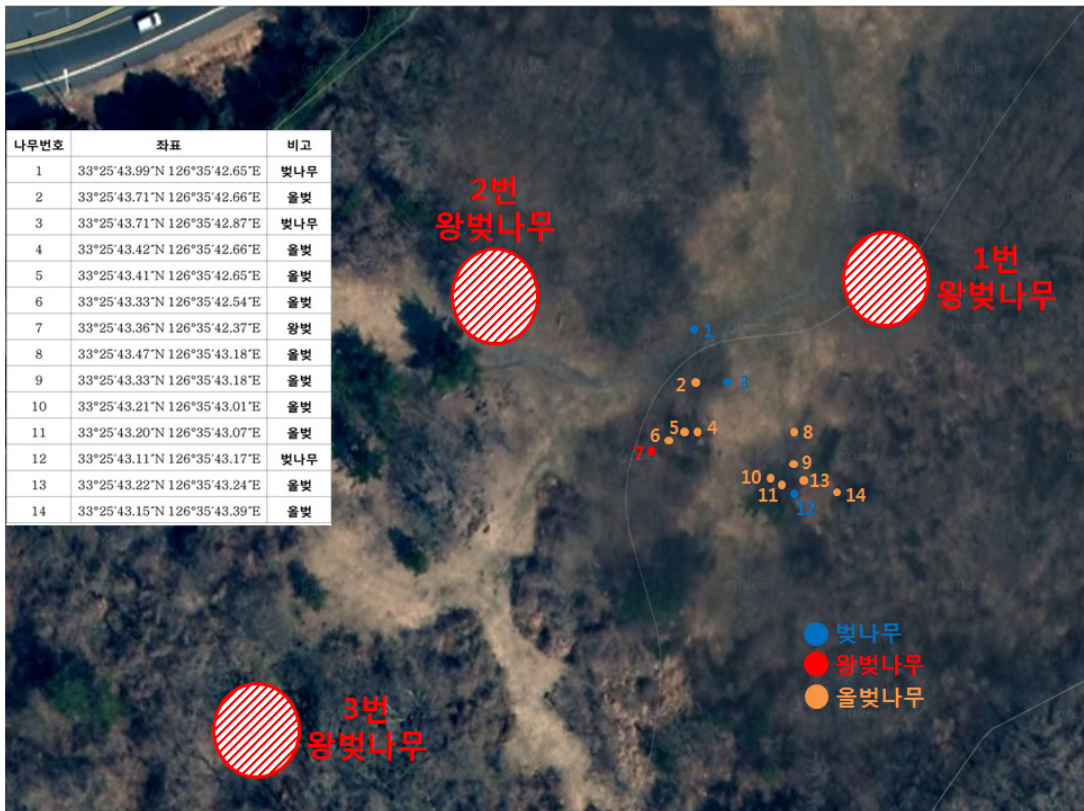


### 3. 후계목 현황

#### 1) 후계목 조사결과

현재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에는 수령이 많은 왕벚나무가 3개체만이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왕벚나무 자생지로서 명분과 역할을 위해서는 후계목의 발굴과 보존이 필요하다. 따라서, 1번목과 2번목 남측의 산림에 분포하는 아교목 이상의 벚나무를 대상으로 후계목으로 가치가 있는 왕벚나무의 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벚나무는 총 14개체이며, 그중에서 11개체는 형태학적 분류에 의해 벚나무와 울벚나무로 확인되었고, 5번, 6번, 7번 후계목 3개체는 왕벚나무로 의심되어 DNA 분석을 실시하였다.

봉개동 왕벚나무 2번목을 대조(Control)로 하여 5개의 샘플의 DNA분석 결과, 봉개동 7번 후계목과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는 대조(Control) 샘플과 93%가 일치하였다. 분석결과로 보아 왕벚나무 자생지의 후계목으로 생각되었던 5번, 6번 후계목은 왕벚나무가 아니며, 7번 후계목만 왕벚나무로 구



〈그림 7〉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의 후계목(치수) 현황

분되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일대(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로부터 약 2.5km 이격)에 수고 15.5m, 흉고 직경 137cm의 왕벚나무가 신규로 확인되었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문화재로 지정해도 충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상 수목에 대해 DNA분석을 통한 형질 분류 및 면밀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 2) 종자 생산량

왕벚나무 3개체의 울타리 내에 각각 방형구(1m×1m) 5개에서 수확한 평균 종자 개수를 조사하여 향후 치수의 발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종자생산량은 1번목에서 약 50개체, 2번목에서 10개체, 3번목에서 8개체가 생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1번목이 2번목과 3번목에 비해 생육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또한, 1번목과 2번목 하부에서는 발아한 왕벚나무의 치수가 발견되었는데, 1번목과 2번목 하부에서 왕벚나무가 발아할 수 있는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경쟁종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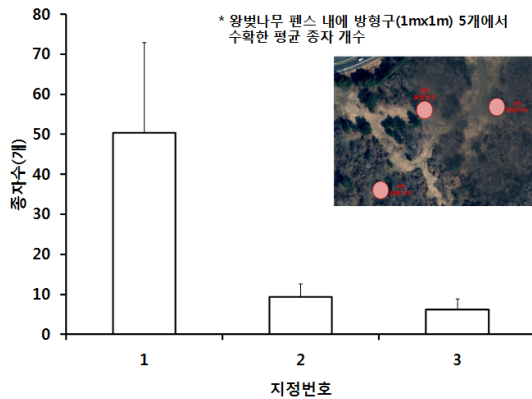
연구대상지에서 왕벚나무는 단독으로 생육하고 있어 경쟁종은 없으나, 3번목의 경우 산림과 연결하고 인근에 매죽나무 등과 경합을 하고 있다. 또한, 매토종자를 분석하여 경쟁종을 확인한 결과, 망초, 쑥리쟁이, 들깨풀, 질경이, 유동, 예덕나무, 거북꼬리, 피막이, 팽이밥, 덩굴별꽃, 털점나도나물, 산딸

〈표 4〉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후계목 DNA분석 결과

번호	위치	Genotype															일치 비율 (%)
		54	57	76	109	131	177	198	204	249	386	438	451	471	580	586	
A	봉개동 왕벚나무 2번목	C	A	T	G	delC	T	T	C	T	C	C	G	A	A	A	Control
B	봉개동 울벚나무	A	G	C	A	delC	C	C	A	C	C	A	T	G	G	C	13%
C	봉개동 후계목 (5번)	C	G	C	G	delC	C	C	C	C	C	A	T	G	G	C	33%
D	봉개동 후계목 (6번)	A	G	C	A	delC	C	C	A	C	T	C	T	A	G	C	13%
E	봉개동 후계목 (7번)	C	A	T	G	delC	T	T	C	C	C	C	G	A	A	A	93%
F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C	A	T	G	delC	T	T	C	C	C	C	G	A	A	A	93%


\* Genotype 아래 숫자는 Base position을 의미.

\* 샘플명 A는 왕벚나무로 위의 분석에서 Control로 사용.



〈그림 8〉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의 종자생산량 및 치수 사진

〈표 5〉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매토종자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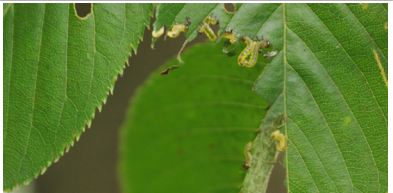
대상지	출현 식물명	출현 종수	사진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자생지	망초, 보리뱅이, 들깨풀, 질경이, 유동, 예덕나무, 거북꼬리, 피막이, 팽이밥, 덩굴별꽃, 털점나도나물, 산딸기, 벼과 sp., 주름잎, 서울제비꽃, 돌나물	16종	

기, 벼과 sp., 주름잎, 서울제비꽃, 돌나물 등 총 16종이 출현하였다.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벚나무 종류는 동일한 규모의 나무들과의 경합에서 밀려 쇠퇴하거나 덩굴식물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 4. 병해충 발생 현황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에서 잎을 기주식물로 이용하는 잎벌류의 유충이 확인되었으며, 잎벌류의 유충은 군집생활을 이루고 있고, 잎을 가해하여 왕벚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병해충 발생 현황

구분	종류	특징	피해 현황
해충	잎벌류	잎벌의 유충이 잎을 가해함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잎 줄기만 남기고 가해를 하여 피해를 줌	

## Ⅳ.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1. 문화재 이용 및 활용 현황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1131번 지방도를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한 제주컨트리클럽이 끝나는 동쪽도로 오른편에 생육하고 있어 위치상 관광객 방문이 쉽지 않다. 탐방객을 위하여 하예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하예작업으로 인해 자연 치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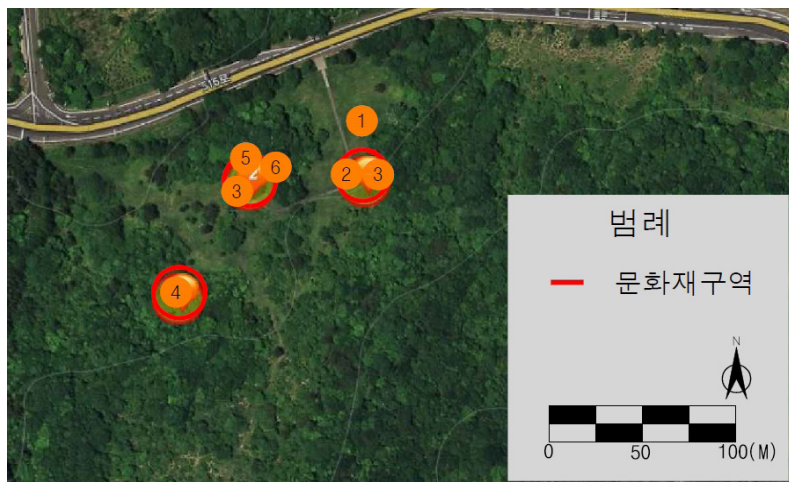
### 2.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시설물은 안내판, 지주, 보호책, 쇠조임, 기념비가 있다.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경고문이 더 필요하다. 안내판 또한 출입구 부근에 1개가 존재하나, 추가적인 표지판과 안내판이 필요하다.

〈표 7〉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시설물 현황

시설명	재질	수량 및 연장	규모	위치
안내판	철재	1개	65*180(cm)	①
지주	목재	9개	지주마다 다름	②
보호책	목재	42m	높이 95(cm)	③
	석재	25m	높이 90(cm)	④
쇠조임	철재	2개	길이 100(cm)	⑤
기념비	석재	1개	32*72(cm)	⑥

위치도





### 3. 보존관리 사업 현황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는 병해충 방제, 영양제 공급, 외과수술, 경내 정비, 관찰로 데크 설치 등의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 4. 보존관리의 문제점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실태조사결과,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V. 보존관리 방안

### 1. 지정구역 확대 및 생육환경 개선

왕벚나무 자생지의 경우 대상 수목이 고사 또는 훼손될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생지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후계목(치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에는 수령이 많은 왕벚나무가 3개체만이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왕벚나무 자생지로서 명분과 역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후계목의 보존이 중요하다.

제주 봉개동의 왕벚나무는 현재 3개체의 노거수를 중심으로 제 각각 반경으로 지정구역을 지정하였다.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명칭에 맞게 금번 조사 시 발견된 왕벚나무 후계목 구역을 포함하여 4개체의 왕벚나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재 구역을 확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일대(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로부터 약 2.5km 이격)에 수고 15.5m, 흉고 직경 137cm의 왕벚나무가 신규로 확인되었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문화재로 지정해도 충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상 수목에 대해 DNA 분석을 통한 형질 분류 및 면밀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표 8〉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문제점

대상지	문제점 분석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 주 진입로 정비</li> <li>· 1131호선 도로 주요 진입로 안내표지판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과학기술단지 입구, 5·16 도로 교차로 등</li> </ul> </li> <li>· 주차시설 협소</li> <li>· 1131번 도로 이용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구역 입구지역에 차속 감속신호, 감속시설(요철)이 없어 교통사고 가능성 상존</li> </ul> </li> <li>· 보호구내 생태계교란식물 애기수영 등 밀생</li> <li>· 문화관광 기반시설 부족</li> </ul>

대상지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인근에서 발굴한 1개체의 후계목을 왕벚나무 4번목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하며, 1차적으로는 나무를 중심으로 목재펜스(지름 10미터 이상)를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의 피음을 일으키는 나무 등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 현재 왕벚나무 3번목의 수관 밑에는 종자가 발아한 유식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1년 이상된 치수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발아는 되지만 유식물로 자라는 과정에서 정지되었기 때문인데, 그 주된 요인은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되어서 답압으로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울타리 안으로의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로 교체하거나, 이를 알려주는 안내판, 안내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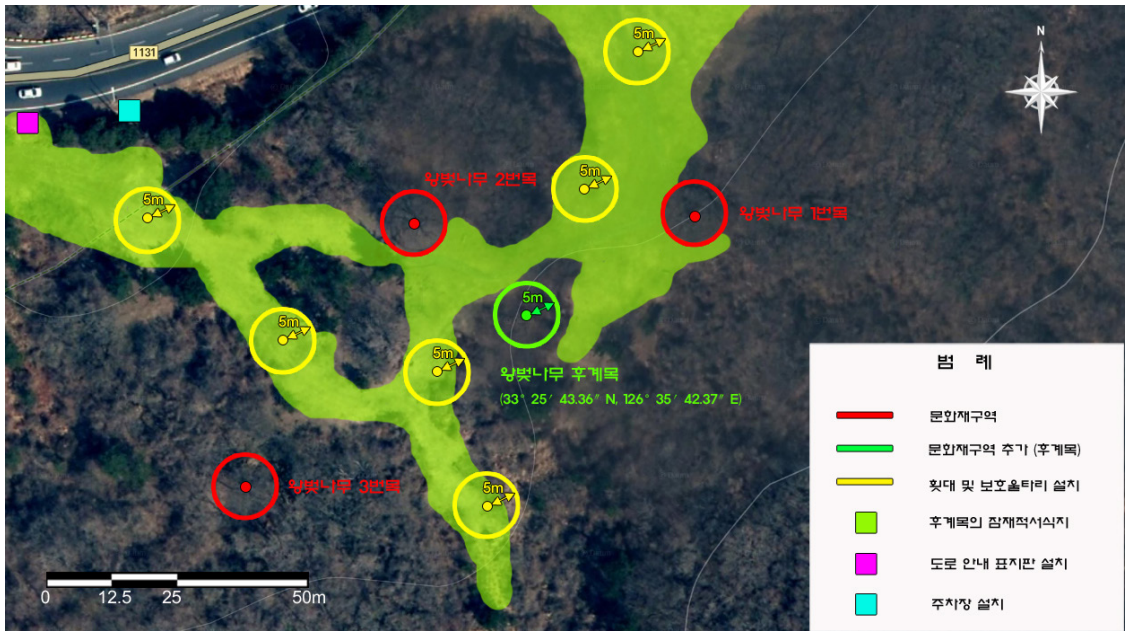
왕벚나무 후계목의 성장과 기존 노거수의 종자 번식 유도를 위하여 노거수 주변의 보호책을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인 후계목 조사를 실시하며, 후계목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4-5년간 인위적인 하에작업과 같은 하층식생 정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직박구리와 같은 조류에 의하여 종자가 이동되므로 왕벚나무 주변에 열매를 먹은 새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횃대의 설치를 검토하고, 이 때 횃대 주변으로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경고문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치수가 발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대상지 내의 충분한 공간의 초지가 있으며, 왕벚나무가 정착하여 생육하기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횃대의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복원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왕벚나무 개체군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왕벚나무의 열매는 무거워 모수 주변에 중력에 의하여 주로 낙하되기 때문에 치수가 모수 주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후계목이 시간이 흘러 자라면 자랄수록 모수의 피음의 영향을 받아 생장을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식물 주변에서 자라는 유식물을 대상지 내의 적합한 지소로 이식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왕벚나무가 갖는 대표성, 상징성을 고려할 때, 혈통이 같은 왕벚나무를 외부에서 양묘하는 것이 있다면, 대상지 구역 내 일정 공간에 식재하여 후계목으로 공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이곳이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홍보의 효과는 클 것이라 판단된다.

## 2. 왕벚나무 홍보 및 교육 강화

왕벚나무의 우리나라 자생지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매우 높다. 현재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는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홍보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기 적합한 지역이다. 봉개동과 신례리 왕벚나무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왕벚나무 후계목 공원 또는 왕벚나무 교육센터 등의 건립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는 왕벚나무 후계목 육성을 좀 더 확대하여 후계목 성목의 개체수가 어느



〈그림 9〉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보존관리 방안

정도 확보된 이후 검토할 사항이며, 왕벚나무 교육센터는 왕벚나무의 교육 제공 및 홍보 외에 자생지 복원 및 종자보관, 양묘 등 증식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내부는 넓은 부분이 잔디로 덮여있어 방문객들의 쉼터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벤치 또는 휴식 테이블 등의 신규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왕벚나무 자생지 내부로 가는 도로 변에는 마땅한 주차 공간과 횡단보도가 없어 주차나 횡단 시 위험하기 때문에 길가 주변의 공간에 주차장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왕벚나무 자생지에 설치된 안내판은 글씨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려우므로, 현재보다 큰 글씨의 문구와 그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안내판 교체가 필요하다. 대상지는 산림청의 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연구소)에서도 왕벚나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와 보존 등에 관하여 이 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MOU)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김창조, 소인섭, 허무룡. 2009. 제주도 5·16 도로 주변 왕벚나무 빗자루병 발병 실태. 농업생명과학 연구. pp.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천연기념물 수림지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천연기념물 식물 입지환경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수림지).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1998.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의 자생실태 및 자생종  
판별 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2002. 국가지정 문화재 :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2009. 천연기념물 노거수 · 수림지 관리매뉴얼.

문화재청. 2011. 천연기념물 수림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4. 천연기념물(식물)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선. 2009. 한국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